

덴진 신앙의 기원

스가와라 미치자네(845-903)는 헤이안 시대(794-1185) 조정의 주요 학자이자 역사가, 와카 시인, 정치가였던 인물입니다. 미치자네는 조정에서 두 번째로 높은 권력을 지닌 고위 관리로 승진하였으며 딸은 우다 천황의 비가 되었지만, 천황이 아들인 다이고 천황에게 자리를 물려주면서 중요한 조력자를 잃게 됩니다. 헤이안 시대의 숨은 권력자이자 만만치 않은 상대였던 후지와라 가문과 대립한 후, 어린 다이고 천황에게 음모를 꾀했다는 거짓 고발로 인해 품계와 칭호를 박탈당하고 다자이후의 관리로 좌천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같은 좌절을 경험했음에도 가해자에 대해 악의를 품지 않고, 좌천을 당한 후 2년이 지나 숨을 거둘 때까지 고결한 삶을 보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역경에 직면한 상황에서도 성실함을 보였던 미치자네를 통해 강인함을 발견하고 그를 널리 칭송했습니다. 미치자네의 사망 후, 정권에서는 그의 품계와 칭호를 복권시켰습니다. 그후 다자이후 덴만구를 비롯한 다른 신사가 건립되었으며, 미치자네를 학문과 문화, 예술의 신인 덴진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덴진 신앙이 발전한 이야기는 두루마리 그림에 묘사되어 있으며, 그 일부를 전시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덴진의 관을 끄는 수소가 누워 꿈쩍도 하지 않는다는 상징적인 장면입니다. 이 모습을 본 미치자네의 시종은 미치자네가 이곳에서 쉬고 싶어 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며 유해를 그 자리에 묻었습니다.